

# “전통사찰 중첩규제 완화” 한목소리

## 대선후보 불교정책 비교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불교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불교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전통사찰 중첩규제에 대해서는 후보들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화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10.27법안'에 대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불교계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들도 토론회 등에서 불교계가 제안하는 공약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불교정책 지원, 불교문화재 보호와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등을 약속했다. 최근 불교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온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서는 후보들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수목장' 문제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실시되면 기존에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시설이 불법(不法)으로 규정되는

## 李 “북한 문화재 조사·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 鄭 “종교편향 근절 법제화·사명대사 현장사업 실시”

중요 사안인데도,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불교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종교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만 '종교 편향과 근절을 위한 법제화'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명박 후보는 공약 대신 '대통령이 되면 종교적인 편향은 없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주요 이슈별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전통사찰 중첩규제 및 수행환경 보전= 전통사찰이 중첩규제에 묶여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불교계는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개정추진위원회'를 통해 조 발족하고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불교관련 각종 규제법을 '전통사찰 보존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문국현 후보도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규제의 형식을 간소화하되, 사찰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0.27 법안 특별법 제정=지난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27법안'에 대해 신군부가 자행한 인권탄압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불교계와 정치권은 '10.27 법안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는 '10.27법안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은 11월 24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10.27 법안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문제이고 문화유산관리 및 예산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불교계와 정부의 갈등

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등산로 이용권과 문화재관람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불교계와의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불교문화재 및 문화축제 지원=그 어느 때보다 불교문화재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공약이 다양하게 발표됐다. 또한 정동영, 이명박 두 후보 모두 연동축제를 국가 전통문화축제로 지정·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불교문화재와 국립공원 권역별 보전 ▲전통사찰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불교문화재의 불교성보존관리 ▲경주 황룡사, 익산 미륵사 복원 ▲한반도 문화재보호재단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 문화재 조사 및 복원사업 ▲권역별 불교문화재 개발 ▲해외반출문화유산 반환추진 ▲문화재위원 불교계 인사 비중 확대 ▲메시지 관리 및 복원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국현 후보는 문화재 예산을 1.5%까지 증액하고 문화재의 권역별 보호, 산림체협 등을 연계한 템플스테이 활성화, 문화정책에 불교계 인사 참여 등을 약속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선출·자격 규정 개정안 발의 70세 이상부터 10년 단임제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1월 28일 30차 원로회의를 열고 원로의원 선출과 원로의원 자격을 규정하는 법 개정안 발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재직의원 24명 중 18명의 원로의원스님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원로위원의 자격을 70세 이상, 10년 임기의 단임제로 하고 퇴임한 80세 이상 스님에 대해서는 명예 원로위원으로 위촉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원로위원 5인을 단임임치로 선출하고, 의장에 종산 스님을 재추대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비구니 명사 법계 품서 시 21조 가사가 아닌 25조 가사를 수여할 것에 대해 법계위원회에 윤원·율장의 근거를 질의했다.

종산 스님은 "29차 원로회의에서 비구니 명사의 경우 법계자격요건은 대종사와 동일하나, 21조 가

사를 수여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명사 법계 품서시에서는 25조 가사를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법계위원회는 율장과 율법 어디에 근거해서 25조 가사를 수여했는지 다음 회기까지 밝히고, 앞으로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계위원장 혜정 스님은 "율장에는 스님의 가사 조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비구니 명사가 비구대중사단의 법계이므로 25조 가사를 주도할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원로회의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은 "가사 조수에 대한 원로회의의 결의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을 지적할 것"이라며 "가사 조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비구니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구·비구니의 구분을 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 4명 등록

### 7일 산중총회서 후보자 선출

12월 7일 열리는 조계종 제23교구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선거에 광탄(성조암)·보연·원종(관음사 부주지)·진아(조자암) 스님 등 4명이 입후보했다.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만화)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주지후보 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4명이 최

### 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관음사 교구선거관리위는 12월 7일 오후 1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입후보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단 청정을 위한 공정선거 서약 및 결의'를 실시하고 공정선거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여수령 기자

## 불교출판문화상 제정

### 조계종, 내년부터 선정·시상

조계종이 불교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을 제정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신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제1회 불교출판문화상 및 불교도서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출판문화상은 한 해 동안 출간된 불서 가운데 우수불서를 선정 시상하며 시상식은 매년 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는 빠르면 3월안으로 선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제1회 불교도서전'도 함께 마련해 일반인들에게 불교출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사찰 작은도서관 설치 운동, 108년 불서 읽기, 군법당 병원 교도소 불서 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하는 등 불서읽기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11월 30일 열린 취임법회에서 법륜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법륜종 제6회 혜봉 총무원장 취임법회

법륜종은 11월 30일 서울 하림각에서 '법륜종 창종 19주년 기념법회 및 제6회 혜봉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원로위원장 혜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달이 고산으로 넘어가니 대지가 고요하고 서늘이 혜봉을 비치니 법륜이 잘 구름도다"며 "대덕스님들은 창종 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 혜봉 총무원장 스님은 "제2창종의 각오로 사부대중의 뜻을 한 데 모아 승풍 진작에 진력 하겠다"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법과 수행, 포교와 복지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 ‘자비’로 버무린 김장김치 드세요

### 천태종 ‘김장 나누기’ 행사

“올해 배추 값이 비싸죠? 천태종 사찰들이 어려운 이웃의 김장 해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산)은 ‘자비의 김장 나누기-행복하고 따스한 겨울 보내세요’라는 이름으로 11월 27일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청주 명

장사주지 화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실시한 이 행사는 전국 30여개 천태종 사찰과 복지기관 등에서 3천여 명의 자원봉사들이 참여 속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4천 세대에 달하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김장진 기자

## 조계종 문화국장 보련 스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은 11월 27일 문화부 문화국장에 보련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前 문화국장 스님인 동국대 이사로 선임됨에 따른 후속 인사다. 보련 스님은 1989년 법아사에서



자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89년 법아사에서 계덕 법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학교 학사·석사를 졸업했다.

여수령 기자

## 현대불교신문

###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보현(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석사)

문의 : 02-2004-8279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대법회



##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 불법을 널리 흥포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특히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종단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종단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 일시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4일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 2동 529번지 쌍청웨딩홀
- 문의 : 창종주 054)632-2799 / 011-228-7813  
총무 031)883-1506~7 / 011-338-1521

충남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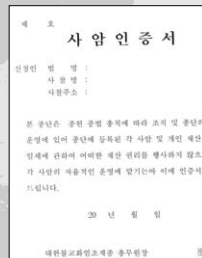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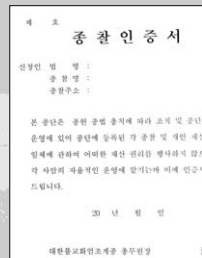
창종주: 혜상  
창종위원회: 관도 해명 금담 해광  
법광 수암 지공 벽암  
증명 : 각 종단 증명 예하

## ▷ 임종 안내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3조. 개인 사찰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교통편 (쌍청웨딩홀 방향)
- 시내버스노선: 대전역 : 221, 720, 726, 829 / 고속터미널 : 640, 103(좌석) / 판암주공5단지 하차 : 829 / 판암주공4단지 하차 : 720, 726, 221, 103(좌석) / 판암근린공원 하차 : 640, 221, 720
- 지하차도: 판암역 3번 출구에서 도보5분거리
- 고속도로(판암 IC에서 2분거리): 서울 - 청원 - 신탄 - 대전 - 판암(IC진입) / 호남 - 광주 - 논산 - 계룡 - 서대전(남부순환도로) - 우주, 진주지역 대전고속도로 이용 판암 IC진입

\* 대전역을 이용하실분은 동광장을 이용하세요. 쌍청웨딩홀 041271-1908